



The Good Edu-Partner
참 좋은 교육파트너, 인천교육청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2014. 7. 3. (목) 10:00

2014년도 교육 행정 에 관 한 보 고

의 안 번호	14
-----------	----

제출일자 : 2014.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먼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어 힘차게 개원 출범하신 제7대 인천시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교육 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 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제7대 시의회의 첫 회기에서 인천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르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에 앞서 인천시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문 부교육감입니다.

송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호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창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 방향, 중점정책과 역점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조직은 본청 2국 3담당관 12과와 16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5개의 교육지원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403개의 유치원, 497개의 초·중·고등학교, 7개의 특수학교에서 40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2만 5,000여 명의 교원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모두 2조 6,9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저와 인천 교육가족은 새로운 인천교육의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의미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즐겁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 안에서 행복을 체감하게끔 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 자녀를
보냈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을 말함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천 시민들은 인천
교육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인천 교육가족은 시민들
로부터 신뢰 받는 인천교육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을 통해서
구현해낼 교육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인천교육은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미래지향
적인 선진국형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교육의 중점 정책과 역점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정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 때마다 되풀이 되어왔던 늦은 반성과 회한의 뉘저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서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가슴에 큰 바윗돌을 얹은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말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학교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음식과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인천형 혁신학교 40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해서 인천 어디서나 최고의 수업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을 추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계고에 재정 지원확대와 협력교사제를 도입하고, 문화예술체육 교육확대로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혁신교육 방향의 기본 틀에 지자체별 교육 특수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건설적인 행·재정 협력 모델이 창출되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감소 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원도심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소와 시정부의 법정전입금 중 전출되지 않고 있는 미전입금으로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에 있는 와중에 예산 규모가 큰 누리과정 운영 등의 국가 정책사업의 부담을 시교육청이 담당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이 해결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정착되고 확대 지원되어 학부모님들의 사부담 공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청 고위직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과거의 악습과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는 교육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형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엄중히 처벌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학부모님과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행복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행복 인천교육의 새 시대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인천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늘 먼저 준비해서 항상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 길을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에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 청 연